

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논의동향

-제3차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 -

극지연구소

▣ 제1차 회의(2015.12, 워싱턴 DC)

- ▶ 주요 참가국들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여 예비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
- ▶ △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, △합리적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
- ▶ 반면, △구속력 있는 협정 채택 여부, △향후 지역수산기구의 발전 가능성 및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 표출
- ▶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논의에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

▣ 제2차 회의(2016.4, 워싱턴 DC)

- ▶ 러시아(비구속적 선언 희망) 이외의 모든 참가국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자세로 문안 협의 진행
- ▶ 현재 추진중인 규범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, 향후 RFMO 또는 RFMA 설립을 추진한다는 데 대체적 공감대 형성
 - 협정 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 의사결정절차 등 논의
- ▶ 참가국들은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해 과학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공동연구 추진방식에 관해 협의중
 - 기존 연구협의체 활용, 별도 하위기관 설립 가능성 등 검토

▣ 제3차 회의(2016.7,캐나다 이칼루이트)

- ▶ 협정 쟁점 사안에 대해 상당 수준의 의견 접근
- ▶ (1) 탐사적 조업 시행방법, (2) 지역수산기구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 결정조건, (3) 의사결정절차 등 주요 쟁점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
- ▶ 이전 회의와 달리, 러시아가 문안 협의에 최초로 참여
 - 여전히 비구속적 성격의 선언문 채택을 선호하는 입장 불변
 - 한편, 중국은 뚜렷한 입장 없이 회의를 관망하는 자세 시현
- ▶ 여타 8개국은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 입장에 대체로 수렴
- ▶ 차기 회의는 11월말 덴마크령 페로제도에서 개최될 예정

☐ Food for Thought

- ▶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채택될 경우의 문제
 - 미 행정부 교체 이후 모멘텀의 상실
 - Moratorium이 準영구화될 가능성?
 - 과학적 연구, 탐사적 조업의 실시는 어떻게 추진?
- ▶ 공해상 어업 규제와 연안국 EEZ 어업규제 간의 양립성 (compatibility) 문제
 - 새로운 국제법 practice?
- ▶ 탐사적 조업(exploratory fishing)과 연구 조업(research fishing)의 개념 및 실시 방안?

THANK YOU

